

# 현대중국어 시간 개념의 범주화와 통사적 도출 연구\*

장호득\*\*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시간 개념의 언어 범주화
  - III. 시간 개념의 현대중국어 범주화와 도출
    - 1. 술어 전치성분의 '집합' 범주화와 통사적 도출
    - 2. 술어 후치성분의 '원소' 범주화와 통사적 도출
  - IV. 결론
- 

## I. 머리말

본 연구는 현대중국어 술어와 관련하여 시간 개념의 범주화 특징을 규명하고, 그 통사적 도출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현실세계(nonverbal world)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sup>1)</sup> 두뇌세계는 다른 말로 하자면 언어세계(verbal world) 또는 상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이런 언어세계에 대한 표현인데, 이 언어세계는 크게 물건(物件)과 사건(事件), 그리고 기능(機能)으로 나눌 수 있다.<sup>2)</sup> 물건(物件)은 구체적인 물체(物體)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물체가 존재하려면

---

\* 이 연구는 2011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두뇌세계는 현실세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새롭게 조작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언중의 무리에 따라 혹은 개인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다.

2) 필자는 이 사건(事件)과 물건(物件)을 합쳐 사물(事物)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공간(空間)을 필요로 하며, 사건(事件)은 추상적인 일을 나타내므로 이것은 시간(時間)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언어구조의 내용적인 틀을 형성하며, 이 내용적인 틀이 언어적인 소통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능적인 언어형식이 나타난다.<sup>3)</sup>

사건은 술어로 도출되며, 물건은 주어와 목적어로 도출된다. 공간이 없으면 물체가 존재할 수 없으며, 시간이 없으면 사건이 존재할 수 없다. 또 공간이 있어 물체가 존재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정지된 죽은 세계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시공이 관여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생한 두뇌세계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 문장에서의 핵심이 술어라고 가정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시간은 사건을 만들며 이 사건은 술어로 도출되어 구현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술어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오는 시간 관련 어구를 술어와 관련지어 그 범주의 특징과 통사적 도출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 시간 개념의 범주화를 '집합(集合)'과 '원소(元素)'라는 기준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즉, 술어의 전치성분은 '집합(集合)' 범주를 나타내며, 후치성분은 '원소(元素)' 범주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이론을 토대로 술어의 전치성분과 후치성분의 범주 관계를 각각 '수렴(收斂, convergence)'과 '발산(發散, divergence)'이라는 기준으로 확대하여 더 일반화하려는 후속 연구를 앞으로 계속하고자 한다.<sup>4)</sup>

일반 문법책에 보면 '시간의 길이' 즉, 'duration of time'를 표시하는 낱말은 술어 뒤에 목적어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三個月沒有見面。”은 이런 규칙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물(事物)을 “(1)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3) 『법률』사건과 목적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의 의미항목에 가깝다.

3) 문말어기사가 대표적인 기능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기능은 문장의 종류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표적(unmarked)인 기능어는 억양이라고 할 수 있다.

4) 본고에서 사용하는 '수렴(收斂)'과 '발산(發散)'은 수학 용어에서 가져왔다. 수렴은 '변수(變數)가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며, 발산은 '무한 수열, 무한 급수나 함수의 값 따위가 극한값을 가지지 않고 양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되거나 부정(不定)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5) 房玉清(1992:188): “時量賓語——由數量短語充任的表示動作時間長短的賓語。等一

에서 벗어나 있다. ‘三個月’는 ‘個’가 있으므로 시간의 양을 나타낸다. ‘시간의 양’ 즉,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三個月’는 왜 술어 뒤의 목적어나 보어로 나타나지 않고 술어 앞에 왔는가? 현대중국어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去年我們沒有見過面。”에서 ‘去年’은 시간의 길이인가, 시점(時點)인가? “昨天我們沒有見過面。”에서 ‘昨天’은 시간의 길이인가, 시점(時點)인가? 그리고 ‘시간의 길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앞에서 제시한 본고의 가설과 관점으로 분석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언어구조의 원리와 규칙을 일반화할 것으로 본다.

## II. 시간 개념의 언어 범주화<sup>6)</sup>

본고에서는 시간을 ‘절대시간’, ‘상대시간’, ‘객관시간’, ‘주관시간’로 나눈다. 절대시간과 상대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와 우리를 벗어난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언어세계의 시간도 아니요, 심리적 시간도 아니고, 어떤 절대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다루는 물리적 시간을 말한다.<sup>7)</sup>

시간은 속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속력은 물체가 얼마나 빠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 시간에 이동한 거리로 구한다. 즉, ‘속력=(움직인 거리) ÷ (움직인 시간)’의 공식으로 표시한다.

이런 물리적 시간은 다시 ‘절대시간’과 ‘상대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 시간이고, 후자는 갈릴레이의 속력 덧셈 공식이 적

會兒。走了三天。我來了三年了。她考慮了半天。”

6) 익명의 심사자는 이 부분이 긴 편폭을 차지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제목에서 보듯이 ‘시간 개념의 범주화’가 논문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좀 자세히 다룰 필요성이 있으며, 또 언어형식은 언어내용을 떠나서는 존재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언어내용이 언어형식으로 생성, 도출되는 과정에서 전제되는 개념의 ‘범주화’를 명세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세워 논지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7) 여기서의 ‘절대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빛의 속력’을 말한다.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속력도 빛의 속력보다 빠를 수 없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빛의 속력을 물리적 시간의 기준으로 간주한다.

용된 시간이다.

먼저, '상대시간'에 대해 살펴보자. 초속 2m로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초속 1m의 속력으로 버스가 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초속 3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버스의 속력과 그 안의 어떤 물체의 속력은 밖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그 두 속력을 더한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갈릴레이의 속력 덧셈 공식이다. 이것은 우리가 빛의 속도에 기준을 맞추어 모든 물체를 같은 시간 세계에 묶어놓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상대시간'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체가 각자의 절대적인 시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물체이지만 자신만의 시간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빛의 속도라는 경계 안에서 시간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상대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절대시간'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에 적용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으며, 또 빛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이런 관점에서 달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빛의 속력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 초속으로 10m 달리는 자동차의 빛의 속력은 어떨까? 앞에서 설명한 갈릴레이의 속력 덧셈 공식에 따르면 이 자동차의 빛의 속력은  $300,000,000 + 10 = 300,000,010 \text{m/s}$ 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sup>8)</sup> 이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원래의 빛의 속력과 같은  $300,000,000 \text{m/s}$ 이다. 이것이 바로 '빛의 속력 불변의 법칙'에 속하며 이 원리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이다.<sup>9)</sup> 여기에 다시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속력을 적용하면 그 이동 거리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공과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공의 이동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는 공이 똑바로 떨어지는 반면, 후자는 공이 비스듬하게 떨어진다. 이 공을 빛으로 바꾸어 보면 자동차 안의 사람과 밖의 사람에게 빛이 움직인 거리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자동차 안의 사람의 시간이 자동차 밖의 사람의 시간보다 짧게 된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더 천천히 흐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8) 빛은 1초에 30만km를 움직이며, 이것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것과 비슷하다.

9)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는 다시 일반상대성이론과 특수상대성이론으로 나뉜다.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며, 이것은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저마다의 고유 시간이 적용된 것이다. 즉,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물체는 각각의 절대시간의 세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테두리에서 보기도 하는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절대시간’으로 명명하고자 한다.<sup>10)</sup> 이것은 시간의 다차원성으로, 이런 절대시간이 우리 삶의 테두리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어 생활하게 된다면 우리 삶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본고에서는 이런 실제 시간을 다시 ‘객관시간’과 ‘주관시간’으로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시간을 어떻게 인식할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언어생활 속에서 범주화시켜 살아갈까?

우리 두뇌는 기본적으로 ‘틈’ 즉, ‘쫄개기’를 통해 현상계를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틈’은 ‘人間’, ‘時間’, ‘空間’에 나타나는 세 개의 ‘間’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과 시공에 ‘틈’이 없다면 ‘쫄개기’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쫄개기’를 할 수 없다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의 혼돈 즉, 카오스(chaos)<sup>11)</sup>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뇌를 이용하여 ‘틈’을 통한 ‘쫄개기’로 이런 것들을 분리·독립시켜 우리 삶의 현상계를 수와 양의 개념으로 범주화시켜 살아가고 있다.<sup>12)</sup> 즉, ‘인간’에서 ‘間[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너와 나의 객

10) 이것은 물체의 ‘고유진동수’와 일맥상통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유진동수(固有振動數, natural frequency, characteristic frequency): 고체는 그 형태(形態), 장력(張力), 탄성(彈性), 밀도(密度) 등에 따라, 또 액체는 고체로 둘러싸인 형태, 장력, 탄성, 밀도 등에 따라 일정한 진동수(하나로 국한 되지 않음)를 가지는데, 이것을 고유진동수 또는 고유 주파수라고 한다. 현을 튕기고, 판을 때릴 경우 등은 고유진동수로 진동하여 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외력(外力)의 진동수와 고유진동수가 일치하면 공진을 일으킨다.

11)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그리스의 우주 개벽설에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 또는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를 말하지만, 본고는 ‘분리되지 않은 일체’의 뜻으로 사용한다.

12) 물론 우리 삶이 ‘쫄개기’, ‘분리·독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포분열과 같은 ‘쫄개기’, 태아와 산모의 ‘분리·독립’으로 주체를 객체화하여 정체성을 확보한 후 다시 ‘홀로서기’, ‘새로운 합치기’를 통해 ‘합일의 경지’에 이르면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해간다.

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한 사람, 두 사람 등의 개념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에서 '間[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2013년 1월 10일', '천일 동안', 더 나아가서는 '삼세번' 등의 개념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도 없을 것이다. '공간'에서 '間[틈]'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기', '저기' 등의 구체적인 공간에서부터 '우리', '삶의 세계' 등 추상적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식하지 못하여 '존재', '삶' 등에 대한 개념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본 '세 개의 간[三間]'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주 삼라만상의 현상이 이 삼간(三間) 속에서 생생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삼라만상의 우주는 시공이라는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시공이라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sup>13)</sup> 이 '시공'에서 '空間'은 3D<sup>14)</sup>의 입체로 구성되어지며, 여기에 시간이라는 차원(次元)이 하나 더 더해져 4D<sup>15)</sup>라는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空間'이라는 3D만 있다면 그것은 실제 현상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지된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실제(實在)에는 '시간'이라는 차원(次元)이 더해져야만 한다. 그래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우리 삶에서 쓰이는 시간을 '객관시간'과 '주관시간'으로 나누었다.

먼저 '객관시간'에 대해 살펴보자.

'객관시간'이란 '현재의 나와 너 그리고 우리', '과거의 우리와 조상', '미래의 우리와 후손'을 불문하고 공유하고 있는 시간을 이른다. 여기에도 삶의 테두리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대한 통일된 인식의 전제만 있다면 그 시간을 서로 같은 값으로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지구의 공간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리니치(Greenwich)<sup>16)</sup>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을 기준으

13) '宇宙'라는 낱말도 한자(漢字)의 의미로 분석해보면 '宇'는 공간 개념을, '宙'는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 '世界'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世'는 시간 개념을, '界'는 공간 개념을 표시한다.

14) 'D'는 'Dimension'으로 '차원(次元)'을 의미한다.

15) 여기서 말하는 '4D'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공을 초월하여 넘나드는 의미의 사차원이 아니라, 공간의 삼차원에 시간이 더해진 것을 의미한다.

16) 그리니치(Greenwich): 영국의 런던 동남부 템스 강 오른쪽 언덕에 있는 도시.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던 곳으로, 이곳을 지나는 경선(經線)을 본초 자오선으로 정하였다.

로 했을 때는 그 지역 내의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한국의 표준시간을 정하여 한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주관시간’은 어떤 시간의 값을 서로 같은 값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른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눈을 감게 한 후 아무 것도 의지하지 않고 20분 후에 눈을 뜨게 했을 때, 실제로 눈을 뜨는 시간대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체감속도는 개개인의 맥박 수가 다르듯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 각 사람의 맥박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후, 긴장할 때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체감하는 속도도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다.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루한 상태나 공포 속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런 체감시간 즉, ‘주관시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 개념이 언어생활 속에서 범주화되어 활용될까? 이에 대한 본고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객관시간’이 언어생활 속에서 범주화되어 활용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0일’, ‘천일 동안’, ‘어제’, ‘오늘’, ‘내일’ 등은 본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객관시간’이므로 바로 언어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주관시간’이 언어생활 속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관시간’도 융통성이 발휘되는 시간 개념으로 활용될 때는 언어형식으로 범주화되기도 한다.<sup>17)</sup> 예를 들어 ‘점심 때’, ‘그때쯤’ 등은 개개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사전에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호 간의 합일점이 있다면 주관시간도 언어생활 속에서 범주화되어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우리네 삶 속에서의 시간 개념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범주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의 1차원성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현실 삶 속에 시간의 다차원성이 적용된다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범주화에는 시간의 1차원성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언어의 범주화에 적용되는 시간은 ‘객관시간’이며, ‘주관시간’도 언어 사용자 간의 합일에 의해 부차적으로 범주

17) 여기에서 ‘융통성이 발휘된다.’란 의사소통을 하는 사이에서 오해하지 않고 서로 같은 값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런 '객관시간'이 언어 부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언어의 기능 가운데 대표적인 기능은 '의사소통'이다. 이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부호화하고(encoding) 그 부호를 해석(decoding)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값을 객관화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생성과 도출은 두뇌 속의 세계를 소리라는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sup>18)</sup> 이 소리는 '쫄개기'를 통해 분절될 수 있다. 이 원리에 따라 '음절', '형태소', '낱말', '구', '절', '문' 등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언어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언어생활 속에서 언어 부호로 범주화되는 '시간'은 '時點(point of time)', '期間(duration of time)', '頻度(frequency)'로 나눌 수 있다.

'시점'에 해당하는 언어형식은 '어제', '오늘', '내일', '그때쯤', '2013년' 등이 있고, '기간'에 해당하는 언어형식은 '하루', '이틀', '일 년' 등이 있으며, '빈도'에 해당하는 언어형식은 '가끔', '자주', '늘' 등이 있다.<sup>19)</sup> 시간이 언어 부호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時間: 變 → 實、虛(加, 減) → 點、間[準] → 時點、期間 → 順序、量(頻度)

시간은 변화를 담보하며 이것은 '뜸', '쫄개기', '다시 합치기' 등의 과정을 거쳐 인간의 두뇌 속에서 다시 조작된 세계를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點'과 '間'이라는 기준에 의해 '時點'과 '期間'으로 언어 범주화된다. 이 '時點'과 '期間'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서 값'을 가지면서 전후(前後), 상하(上下) 등과 같은 방향성이 정해지고, 여기에 양(量)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빈도(頻度)'라는 언어 범주가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18)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추후에 진행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말'을 정의할 때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본고는 이런 관점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여 '두뇌 속의 세계'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19) '일 년'은 시점을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어구가 시점의 의미를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연유로 기간을 나타내는 어구 뒤에 '동안'과 같은 낱말을 붙이기도 한다.

20) 일반적으로 다루는 언어형식의 범주에는 'TAM(Tense, Aspect, Modality)', 'SER(Speech Time, Event Time, Reference Time)'이 있다.

이상을 현대중국어 언어형식의 범주화에 적용시켜보면 아래와 같다.

時點: 2013年1月2日, 三天前, 三天後  
 期間: 一年, 兩個月, 兩天, 前三天, 後三天  
 頻度<sup>21)</sup>: 偶爾, 時時, 常常, 三次, 三遍

### Ⅲ. 시간 개념의 현대중국어 범주화와 도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사용 과정은 정보에 대한 열고 닫기의 반복 과정이다. 정보 전달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옛 정보를 미리 제시한 후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은 음성 신호를 사용하며 이 음성 신호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 즉, 시간이 흘러가면 음성 신호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부호화(encoding)한 음성 신호를 받은 즉시, 즉 음성 신호가 허공으로 사라지기 전에 그 정보를 해석(decoding)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음성신호는 일정한 단위로 나뉘어져 전달되어야 하며 그 수도 일정한 수<sup>22)</sup> 이상을 넘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될 받게 된다.

문장의 핵심은 술어(述語)이다. 술어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가 오며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이런 기본적인 통사구조가 갖는 의사소통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술어는 앞뒤에 각각 부사어와 보어가 오며, 주어와 목적어는 앞에 관형어가 온다.

알다시피 술어는 기본적으로 시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언어에서 시간 관련 범주는 술어와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때로는 술어 앞이나 뒤에서 부사어로 수식하거나 보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굴절이나 파생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1) 부차적으로 만들어진 '빈도' 개념은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22) George A. Miller(1956) 교수가 주장한 '마법의 수, 7±2'(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문장의 핵심 역할체는 주어, 술어, 목적어 3개이며, 이를 보조하는 성분도 관형어, 부사어, 보어 3개, 문장의 종류를 결정짓는 어기사(語氣詞)에 독립어를 포함하더라도 7개 정도이다.

본 장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시간 개념이 통사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기간’ 즉, ‘시간의 길이(duration of time)’를 나타내는 어구는 술어 뒤에 온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我們三個月沒有見面。”처럼 기간을 나타내는 ‘三個月’가 술어 앞에 출현하고 있다.

또 戴浩一(1988)는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에서 중국어 어순의 ‘시간순서원칙(PTS)’을 주장하면서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는 동사 뒤에 출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我們三個月沒有見面。”에서 ‘三個月’가 술어 앞에 출현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 그는 중국어에서 빈도부사는 술어 뒤에 와서 지속을 표시하는 부사어와 같은 통사적 현상을 보인다고 말하면서 “他來了三次。”와 “\*他三次來了。” 같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sup>24)</sup> 그러나 “他三次都來了。”, “他一次都沒有來。”처럼 똑같은 부사어가 술어 앞에 출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시간순서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 “我今天非常高興能夠有機會和大家再見面。”과 “他來自北京了。”와 같은 예문도 있다.<sup>25)</sup>

본 장에서는 ‘기간’, ‘지속’ 등의 시간적 범주에서 벗어나 ‘집합’과 ‘원소’라는 범주화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하 분석에서는 먼저 술어 전치성분과 후치성분으로 구분한 후, 다시 시점의 집

23) 在漢語中, 表示時間持續的狀語只能出現在動詞之後。例如:

- (39) a. 他病了三天了。  
b. \*他三天病了。  
c. \*三天他病了。

24) 在漢語中, 頻率副詞也出現在動詞之後。例如:

- (44) a. 他來了三次。  
b. \*他三次來了。  
c. \*三次他來了。  
(45) a. 我打了他三次。  
b. \*我三次打了他。  
c. \*三次我打了他。

PTS可以用說明持續副詞的同樣方式來說明頻率副詞的語序, 因內頻率副詞呈現出幾乎跟持續副詞相同的句法現象。

25) 그 외에 “在哪兒住?”, “住在哪兒?”, “住哪兒?”, “你哪兒去了?”, “你去哪兒了?” 등의 예문도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아야 할 대상이다.

합과 원소 범주화, 기간의 집합과 원소 범주화로 적용시켜 통사적 도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슬어 전치성분의 '집합' 범주화와 통사적 도출

시점(時點)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느 한 순간(瞬間)을 뜻한다.<sup>26)</sup> 이것은 그 '순간'의 양적(量的) 대소와 상관없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개념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모두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초, 1분, 1시간, 1개월, 1년, 1세기 등은 모두 '순서'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시점이다. 즉, '21세기를 말할 때는 시간을 100년 단위로 쪼개 일정한 순서로 나열할 때 21번째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2013년'이든 '2013년 1월 1일 1시 1분 1초'이든 모두 순서 개념이 들어 있으므로 시점을 나타낸다. '2013년'의 1년은 365일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2013년'이라고 말할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24시간의 하루하루가 365개 원소로 구성된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순서에 따른 하나의 순간을 나타낸다. 반면 기간(期間)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한다. 이때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구성소 즉, 원소 하나하나를 전제로 삼아 그 의미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현대중국어에서 '一月'은 시점을 표시하지만, '一個月'은 기간을 표시한다.

위에서 언급한 '시점'과 '기간'을 본고에서는 개념의 범주로 보며, 현대중국어에서 통사구조로 도출되는 언어 범주는 '집합'과 '원소'를 설정하였다. '집합' 범주는 그것이 '시점'이든 '기간'이든 그 안의 구성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고, '원소' 범주는 '기간' 중에서 그 속에 내포된 구성소 하나하나를 전제로 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시점'은 그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이며 그 안에 구체적인 구성소의 내포를 전제로 삼지 않으므로 '원소' 범주에 귀속시키지 않는다.<sup>27)</sup>

26) 앞에서 시간 개념을 '틈[間]'을 이용하여 인식한다고 했는데 이 틈을 다시 나누면 '순간(瞬間)'과 '기간(期間)'으로 나눌 수 있다.

27) 익명의 심사자는 "자연수라는 집합은 개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하며, '한 주'라는 집합은 '일, 화, 수, 목, 금, 토요일'이라는 원소를 전제로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학의 관점에서는 옳은 의견이다. 그러나 본고는 수학의 용어를 차용하여 활용한 것이지 수학적 개념을 빌린 것이 아니다. '集합'이란 한자(漢字)의 뜻을 살펴보면 '모아서 합

먼저 술어 전치성분 가운데 시점 개념이 집합으로 범주화되어 나타나는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28)</sup>

(1) 1999年我們見面時，論壇還只是一個設想。(1999년 우리가 만났을 때 논단은 단지 구상 중인 상태였다.)(CCL)

(2) 咱們2008年再見!(우리 2008년에 다시 만나요!)(CCL)

(3) 1982年，有一次我去看他時，當面約定，以後每年去看望他一次。每次見面半天，他問我答，談得很融洽。(1982년 언젠가 내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이후 일 년에 한 번씩 그를 찾아가기로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매년 만날 때마다 한나절 동안 그가 물으면 나는 답하고 하면서 매우 정답게 얘기를 나누었다.)(CCL)

(1), (2)는 각각 '365일'을 하나의 단위로 했을 때 '1999 번째 해'와 '2008 번째 해'를 가리킨다. 앞에서 말했듯이 양적(量的)인 대소와 관련이 없으므로 '시점' 개념이 '집합'이라는 언어 범주로 도출된 것이다. 이런 점은 (3)을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3)의 '1982년'도 '365일'을 하나의 시간 단위로 했을 때 '1982 번째 해'를 뜻한다. 그런데 이 예는 그 뒤에 '내가 그를 봤을 때'라는 순간(瞬間)의 개념을 확실하게 명시해주는 '時'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이것으로 볼 때 (1)-(3)은 모두 '시점' 개념이 '집합'으로 언어 범주화된 것으로 모두 술어 앞에서 도출되고 있다.

(4) 一天做不了這麼多活兒。(하루에 이렇게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다.)

(5) 終於有一天，我也做了媽媽，有了自己的孩子。(결국에는 나도 엄마가 되

다라는 뜻이고, '元素'는 '으뜸 바탕, 기본적인 요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전자는 '합(合)', 후자는 '소(素)'에 초점을 두고, 전자는 그것이 아무리 큰 수(數)나 양(量)이더라도 '하나의 덩어리'로 본 것이며, 후자는 수(數)나 양(量)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속의 내용을 쪼개면서 분리하여 '이산(離散)된 상황'으로 보는 관점이다.

28) 본고에서 사용하는 예문 가운데 인용한 예문은 그 출처를 뒤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의 CCL語料庫에서 가져온 것이면 'CCL'이라고 괄호 안에 표시한다.

29) 익명의 심사자는 "한 차례는 바로 1982년이라는 기간 내의 한 차례라는 기간(원소)의 개념이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예문의 초점은 '한 차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1982 번째 해'의 '어떤 때[時]'에 있다. 그러므로 이 예문은 본고의 관점과 부합하며 '집합'의 범주를 나타낸다.

고 내 아이가 생겼다.)

(4)의 ‘一天’은 예문의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시점이 아닌 ‘기간(期間)’이라는 시간 개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의 24시간 구성소 가운데 1시간 1시간을 따져 24개의 원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24시간’의 범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의 시간 범위는 본고에서 말하는 ‘집합’이라는 언어 범주에 속한다. 즉, (4)를 말할 때는 ‘一天’의 한 시간, 한 시간, 일 분, 일 분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기간 동안 이내’라는 범위로 묶는 ‘집합’을 나타낸다. (5)는 더욱 재미있는 통사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終於有一天’ 자체로만 볼 때는 ‘一天’이 ‘有’라는 술어 뒤에 와서 ‘기간’을 표시하고 있지만, 뒤에 오는 문장의 중심 술어인 ‘做’와 ‘有’의 앞에 출현하여 ‘기간’이 다시 ‘집합’ 개념으로 언어 범주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의 ‘기간’ 개념도 ‘집합’이라는 언어 범주를 형성하면서 술어 앞에서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這件事我三天前就知道了。(이 일은 내가 삼 일 전에 알았다.)

(7) 正式開幕的前三天，舉行開幕式預演。(정식으로 개막하기 삼 일 전에 개막식 예행연습이 진행된다.)

(6)의 ‘三天前’은 시간 개념으로는 ‘시점’을 나타내고, (7)의 ‘前三天’은 ‘기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둘 다 각각 문장 전체의 술어 ‘知道’와 ‘舉行’ 앞에 출현하면서 ‘집합’으로 언어 범주화되어 도출되고 있다.

(8) 5個月我們只見過6次面，有時我真的不想見他。(우리는 다섯 달에 겨우 여섯 차례 만났는데 어떤 때는 난 정말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CCL)

(9) 近一個月了，沒見過太陽，等天晴了，我們將棉花曬乾，全部賣給國家。(한 달 가까이 태양을 보지 못하여 날이 쾌청해지자 우리는 면화를 말려 모두 국가에 팔았다.)(CCL)

(10) 父子倆已經20多年沒見面了。(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벌써 2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CCL)

(11) 她和他已經兩個多月沒有見面了。(그녀와 그는 이미 두 달 동안 만나지 못했다.)(CCL)

(12) 我們去年沒見面。(우리는 작년에 만나지 못했다.) (CCL)

(8), (9), (11)은 모두 ‘個’가 쓰여 ‘기간’ 개념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기간’을 나타내는 어구가 문장 전체의 술어 앞에 오는 전치성분으로 도출되고 있다. (8)은 주어 쓰이면서 ‘집합’ 범주를 나타내고<sup>30)</sup>, (11)은 부사 ‘已經’ 뒤에 와서 ‘부사어’로 쓰이면서 ‘집합’ 범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9)는 뒤에 ‘了’가 와서 술어로 쓰이고 있지만, 뒤에 오는 문장의 중심 술어 앞에 위치하여 ‘집합’ 범주를 나타내고 있다. (10)-(11)은 부정문에서 쓰이는 예로 긍정, 부정과 상관없이 ‘집합’ 범주는 중심 술어 앞에 도출됨을 알 수 있다. ‘기간’ 개념이 ‘부정’과 결합되어 나타날 경우 ‘기간’을 나타내는 낱말이 중심 술어 앞에 온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8)-(12)를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럴 경우 (8)처럼 앞에 ‘只’, ‘都’ 등과 같이 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시간의 길이’를 ‘집합’으로 언어 범주화하여 통사구조를 도출시키는 하나의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13) 從那時到現在, 我已有三個月沒有見過他。(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벌써 세 달 동안 그를 본 적이 없다.) (CCL)

(14) 從春天到現在, 有八個月……不, 九個月沒見了, 真是難得。(봄부터 지금까지 8개월, 아니, 9개월간 보지 못했더니 정말 드문 일이야.) (CCL)

위 (13)과 (14)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집합’으로 언어 범주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의 ‘有三個月’ 자체의 통사구조만 놓고 볼 때는 ‘有’라는 술어 뒤에 와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면서 ‘원소’로 범주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我

30) 익명의 심사자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5개월’은 집합이고 ‘6번의 만남’은 원소가 되어야 하지만, ‘5개월’이란 집합은 ‘6번’(또는 6번의 만남)을 고유한 원소로 삼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필자는 전자가 내부 구성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집합’으로 정의하였으며, 후자는 내부 구성원 하나하나를 전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원소’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과 ‘원소’의 원리를 활용하긴 했지만, ‘집합’을 ‘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집합’이 정해지면 ‘원소’를 그 집합의 ‘고유한 원소’로 삼는다는 관점이 아니다. 즉, 각각을 독립된 범주 즉, ‘집합’과 ‘원소’ 범주로 본 것이며, ‘6번’을 ‘5개월’의 고유한 원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구조로 도출된 이후에 드러나는 범주화 과정으로 본 것이다.

已有三個多月沒有見過他。”라는 문장 전체에서 볼 때는 부사 ‘已’ 뒤, 중심 술어 ‘見’의 앞에 출현하여 ‘有三個多月’ 전체 어구가 다시 ‘집합’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중심 술어 ‘見’의 전치성분으로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시점’과 ‘기간’의 두 개념은 모두 ‘집합’으로 언어 범주화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집합’으로 범주화된 성분은 중심 술어 앞에서 주로 부사어로 도출됨을 알 수 있다.

## 2. 술어 후치성분의 ‘원소’ 범주화와 통사적 도출

### 1) 시점(時點) 개념 원소 범주화의 불가역성과 도출

- (15) \*他吃了下午一點。(그는 오후 1시 식사했다.)  
 (16) \*他吃了午飯下午一點。(그는 오후 1시 점심을 먹었다.)  
 (17) 他吃了下午三點的午飯。(그는 오후 1시의 점심을 먹었다.)  
 (18) 他吃了兩個小時。(그는 두 시간 동안 식사했다.)

(15)와 (16)은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개념이 중심 술어의 뒤에 출현하는 예이다. 이때는 모두 비문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기 동일시 과정에 의해 ‘시점’이 ‘집합’ 개념으로만 언어 범주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시점’은 그 안에 구성소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원소’로 언어 범주화될 수 없고, ‘집합’으로만 언어 범주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시간 개념의 논리적 비가역성(非可逆性)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7)에서는 ‘下午三點’이라는 시점 개념이 술어 뒤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어 앞에서 관형어로 사용되는 예이다. 술어가 ‘시간성’을 구현하듯이, 주어와 목적어는 ‘공간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공간성’은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이런 과정에서 언어 범주는 그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것은 관형어가 시간성과 함께 도출되기보다는 공간성과 같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18)의 ‘兩個小時’는 ‘기간’ 개념을 갖고, ‘원소’로 언어 범주화되어 중심 술어의 후치성분으로 도출되고 있는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하여 분석하기로 하겠다.

## 2) 기간(期間) 개념의 원소 범주화와 도출

어떤 3킬로그램의 가방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자. 이 경우 그냥 곁에 표시한 3킬로그램 들이 가방으로만 생각한다면 ‘집합’ 개념에 속하는 것이고, 가방을 열어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3킬로그램 내용물의 구성을 하나하나 따진다면 ‘원소’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구성물은 1킬로그램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무게로 구성된 몇 개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間’의 개념이 포함되어야만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9) 他只與我談文學，談了很久之後，他聲稱非常希望每天能見到我幾個小時。(그는 나하고만 문학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고선 매일 나와 몇 시간씩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CCL)

(20) 當時，你一個勁兒地求我“只見一個小時，一個小時”。(당시 넌 줄곧 “한 시간만 만나 달라.”고 나에게 요구했었다.) (CCL)

(19)와 (20)의 ‘很久’, ‘幾個小時’, ‘一個小時’는 모두 시간의 길이인 ‘기간’ 개념을 표시하며, 그 시간의 길이 속에 들어 있는 구성소 하나하나를 전제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원소’로 언어 범주화되어 도출되고 있다.

(21) 今天下午學習一小時再打球。(오늘 오후에는 1시간 공부하고 공치러 간다.) (劉月華 1983:383)

(22) 他每天早到十分鐘。(그는 매일 10분 일찍 도착한다.) (劉月華, 1983:383)

(21)과 (22)의 ‘一小時’, ‘十分鐘’은 시간의 길이 즉, ‘기간’을 의미하고 있으며, ‘원소’로 언어 범주화되어 중심 술어 뒤에서 보어로 통사적 도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一小時’는 ‘個’가 없지만 ‘個’의 의미가 들어간 ‘기간’을 표시하면서 술어 ‘學習’의 보어로 쓰이고 있다.

(23) 和外國人認識沒三天，就會提出這樣那樣的請求。(외국인과 알게 된 지 3일도 되지 않아 바로 이런 저런 요구를 했다.)

(24) 我只休息了一天, 沒休息兩天。(난 이틀 쉰 것이 아니라 단 하루 쉬었다.)(劉月華 1983:382)

(25) 你不休息一會兒不行。(잠깐 쉬지 않으면 안 된다.)(劉月華 1983:382)

(23)의 술어 뒤에 부정형식의 ‘沒三天’이 출현한 구조로 우리말로는 ‘3일도 되지 않다’, ‘3일도 지나지 않아’의 뜻을 나타낸다. (24)와 (25)는 부정사 ‘沒’, ‘不’이 같이 출현하는 통사구조로, ‘원소’로 언어 범주화되어 도출된 통사구조는 긍정, 부정과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6) 我說了沒幾分鐘話給他打斷了。(내가 몇 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전화를 끊었다.)(劉月華)

(27) 他說了沒幾天, 伯父喂的牛就死了。(그가 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큰아버지가 기르던 소가 죽었다.)

(28) 來了沒幾天, 話還不太會說, 就跟隔房的同學去吵架。(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바로 옆방의 동학과 다투었다.)(CCL)

(26)-(28)은 시간을 일정한 단위로 쪼개어 그 안에 포함된 구성소 즉, 원소 하나하나를 인식하고 있는 예문이다. (26)은 말은 했지만 그 말한 시간을 1분, 1분으로 쪼개었을 때 그 원소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話’가 ‘說’의 목적어로 출현하여 ‘원소’ 개념의 범주화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과 (28)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她沒說幾句話我就猜到了.”처럼 ‘기간’ 개념을 표시하지 않을 때는 부정사 ‘沒’이 술어 앞에 출현하여 그 술어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시점’과 ‘기간’이 ‘집합’과 ‘원소’ 범주화된 중국어 통사구조

31) “몇 시간 뵙지도 못하고 헤어지자니 서운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헤어져야 하다니 아쉽습니다.”, “몇 시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떠났다.”는 우리말에서 시간의 흐름 속의 길이, 기간을 나타내지만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쪼갠 시간의 원소의 수가 화자의 마음에서 충분하지 못한 ‘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우리말에서는 ‘시간의 길이’, 또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낱말을 부정사와 함께 써서 술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도출하지만, 중국어는 술어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뒤의 예처럼 술어 뒤에서 ‘원소’로 언어 범주화하여 도출한다. “\*沒有見面兩個多月.”, “男女主角見了沒幾次面就結婚了.”

의 도출을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자.

‘집합’ 범주는 술어 전치성분 형식으로 통사적 도출을 이끌고, ‘원소’ 범주는 술어 후치성분의 형식으로 통사적 도출이 유도된다.

시간 개념 가운데 ‘시점’은 기본적으로 현대중국어에서 ‘원소’로 언어 범주화되지 못하고 ‘집합’으로만 언어 범주화된다. 그러므로 ‘시점’ 개념의 통사적 도출은 술어 전치성분으로만 도출된다.

시간 개념 가운데 ‘기간’은 ‘집합’과 ‘원소’로 모두 언어 범주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간’ 개념은 ‘집합’으로 언어 범주화될 때는 술어의 전치성분으로 도출되고, ‘원소’로 언어 범주화될 때는 술어의 후치성분으로 도출된다.

(29) 人可以一天、幾天或十幾天不吃飯，但不能一天不喝水；人離開水生命就不能維持下去。(사람을 하루, 며칠, 십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해갈 수 없다.)(CCL)

(30) 他曾多次整天不吃東西。(그는 일찍이 여러 차례 하루 종일 먹지 않았다.)(CCL)

(31) 三十六小時，她不吃不喝，世界各地紛紛向醫院打來電話，她一個也不接。(36시간 동안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세계 각지에서 병원으로 전화가 계속 왔는데 그녀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CCL)

(29)는 ‘一天’, ‘幾天’, ‘十幾天’이 ‘기간’을 나타내며, ‘집합’으로 언어 범주화되어 중심 술어의 전치성분으로 도출되고 있으며, (30)은 ‘整天’이라는 ‘기간’이 ‘집합’으로 언어 범주화되어 중심 술어의 전치성분으로 도출되고 있다. (31)을 보면 ‘그녀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시간’이 ‘36시간(三十六小時)’ 계속 지속되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戴浩一(1988:15)이 주장한 “在漢語中，表示時間持續的狀語只能出現在動詞之後。”는 현대중국어의 통사규칙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吃了近一個小時，他決定開始工作。(거의 한 시간 동을 먹고 나서 그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CCL)

(33) 由於是自助餐，又有燒烤，那頓晚餐大家吃足兩個小時。(뷔페에다가 불

고기도 있어 그 저녁 식사는 모두가 2시간 동안 충분히 먹었다.)(CCL)

(32)과 (33)은 ‘기간’이 술어 뒤에 출현하여 ‘원소’ 범주로 도출되고 있다. 즉, (32)는 ‘근 한 시간’이라는 시간의 길이 속에 있는 쪼개진 시간 단위인 ‘원소’ 하나 하나를 전제로 하여 인식하여 도출하는 통사구문이다. (33)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34) 他吃了兩小時的飯。(그는 두 시간 동안 밥을 먹었다.)(CCL)

(34)는 ‘시간의 길이’를 표시하는 ‘兩小時’가 관형어로 쓰인 경우이다. 이것은 술어와 분리되어 또 다른 하나의 영역에 속하면서 동시에 공간성을 띠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것은 ‘집합’과 ‘원소’의 언어 범주에서 벗어난 다른 방식의 도출로, ‘집합’과 ‘원소’ 언어 범주에서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 IV.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본고는 시간을 ‘절대시간’, ‘상대시간’, ‘객관시간’, ‘주관시간’으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언어생활에 적용되어 쓰이는 시간은 ‘객관시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객관시간’을 다시 ‘시점’, ‘기간’의 하위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시점’과 ‘기간’이 현대중국어에서 통사적으로 도출될 때는 ‘집합’과 ‘원소’로 다시 언어 범주화하였다. ‘시점’과 ‘기간’이 ‘집합’으로 범주화될 때는 술어 앞에서 통사적 도출이 일어났다. 그리고 ‘시점’은 ‘원소’로 언어 범주화되지 못하고 ‘기간’만 ‘원소’로 언어 범주화되었는데 이 ‘원소’ 범주는 술어 뒤에서 후치성분의 형식으로 통사적으로 도출되었다.<sup>33)</sup>

32) 본고는 시간성을 띠는 술어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으므로, 공간성을 표현하는 주어, 목적어, 관형어 등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겠다.

33) 술어의 전치성분은 ‘수렴(收斂, convergence)’ 범주로 도출되고, 후치성분은 ‘발산(發散, divergence)’ 범주로 도출된다고 가정하여 더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 【參考文獻】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 서울, 태학사, 2005.
- 鄧守信著, 張旭譯, 〈論漢語否定結構〉(南開大學中文系語言研究譯叢編輯組編, 語言研究譯叢第一輯);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84, 116-138쪽.
- 呂叔湘, 〈疑問、否定、肯定〉; 《中國語文》總第187期, 1985.04.
- 劉月華、潘文娛、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83.04.
- 房玉清, 《實用漢語語法》,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01.
- 石毓智, 《肯定和否定的對稱與不對稱》, 臺北, 臺灣學生書局, 1992.07.
- 戴耀晶, 《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7.02.
-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 《國外語言學》第1期, 1988.
- 龔千炎, 《漢語的時相時制時態》, 北京, 商務印書館, 1995.10.
- 장우석, 《수학 철학에 미치다》, 서울, 슝비소리, 2008.08.
- 張皓得, 〈祖堂集否定詞之邏輯與語義研究〉; 臺北, 國立政治大學中文研究所博士論文, 1999.
- 張皓得, 〈矛盾·反對, 時間·空間에 對한 中國語 否定詞의 具現樣相〉; 《중국어학》 14집(대한중국어학회), 2000, 65-93쪽.
- 張皓得, 〈現代中國語의 ‘沒’·‘有’ 및 相(aspects)〉; 《중국어문학》 35집(영남중국어문학회), 2000, 305-339쪽.
- 카틴카 리더보스(Katinka Ridderbos) 책임 편집, 김희봉 옮김, 《타임-시간을 읽어내는 여덟 가지 시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10.
- George A. Miller,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The Psychological Review》, 1956, vol. 63, 81-97쪽.

## 【中文提要】

時間可分爲“絕對時間”、“相對時間”、“客觀時間”、“主觀時間”，其中“客觀時間”可適用於我們的語言生活。此“客觀時間”再分爲“時點”和“時段”兩個下範疇。

現代漢語在生成句法結構時，我們假設“集合”和“元素”兩個語言範疇。“時

---

것은 후속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點”和“時段”顯現爲“集合”語言範疇時，其“集合”語言範疇出現在述語前邊而推導出狀語；“時段”不能顯現爲“元素”語言範疇，只有“時點”才能顯現爲“元素”語言範疇，此時“元素”語言範疇出現在述語後邊而推導出補語。

### 【主題語】

categorization, syntactic derivation, notional time, convergence, divergence, set, elements, point of time, duration of time, frequency

투고일: 2013. 1. 15 / 심사일: 2013. 1. 20~2. 5 / 게재확정일: 2013. 2. 10